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5. 8. 17. ~ 8. 23.

전남농업정보

47
VOL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재배 동향

2015년산 토마토, 수박 재배의향 속보

전남 시군 농정 동향

해남군 로컬푸드 활성화 적극 나서
강진에 ICT 융합한 창조마을 조성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농가소득 직결 신선농산물 수출 '주춤'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벼농사 왕우렁이 방제 방법 및 대책 밝혀
흰 무궁화, 골다공증 억제에 효과 있어

정책동향

전남도, 농식품 산업화 역량 모은다
농업 6차산업 우수사례 전남 2곳 전국 유일

고소득 농업사례

"과학적 영농 실천하면 직장보다 높은 소득 올린다."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기압골의 영향으로 21~22일에 비가 오겠고,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며 강수량은 평년(6~11mm)보다 많겠음

※ 농산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토마토, 8~10월 정식면적 작년보다 1% 감소
- 수박, 8월 정식면적 작년보다 감소, 9월은 비슷할 듯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엽근채소 : 감자 · 당근

- 감 자 : 전월 및 평년과 비슷한 20,000~25,000원/20kg 전망
- 당 근 : 평년보다 낮은 24,000~29,000원/20kg 전망

▶ 양념채소 : 마늘 · 대파

- 마 늘 : 8월 도매가격은 2015년산 생산량 감소로 평년(3,570원)보다 높으나, 전월 대비 약보합세인 4,600~4,900원/kg 전망
- 대 파 : 8월 도매가격은 노지대파 출하량 감소로 평년(1,387원)보다 높은 1,700~1,900원/kg 전망

✿ 전남 시·군 농정 동향(무등일보, 전라닷컴, 전남매일)

- ▶ 해남군 로컬푸드 활성화 적극 나서
- ▶ 강진에 ICT 융합한 창조마을 조성
- ▶ 장흥 유치면 '유기농 100% 지역' 도전
- ▶ 완도, '친환경 농업'으로 경쟁력 배가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농림축산식품부, 전업농신문)

- ▶ '15.1~7월, 농식품 수출 35.3억불, 전년 동기대비 0.5% 감소
- ▶ 농가소득 직결 신선농산물 수출 '주춤'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 ▶ 전남농기원, 벼농사 왕우렁이 방제 방법 및 대책 밝혀
- ▶ 흰 무궁화, 골다공증 억제에 효과 있어
- ▶ 고온기 피수박 발생 이렇게 예방해요
- ▶ 일시 수확형 샐러드용 상추 연구 개발
- ▶ 내년도 고추품종 선택은 현장에서!

❁ 정책동향(전라남도, 한국농어민신문)

- ▶ 전남도, 농식품 산업화 역량 모은다
- ▶ 농업 6차산업 우수사례 전남 2곳 전국 유일
- ▶ 「국립종자원·GSP 채소종자사업단」 민·관 협업으로 국내채소 종자 수출 확대 지원!
- ▶ 농식품부, 농식품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 이달 31일까지
- ▶ 보조금법 개정안 통과...보조금 최대 3년 지원, 재평가후 연장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미국, FDA 설탕함유식품표시 관련 규정안 발표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전일에 이어 강보합
 - 옥수수 선물가격은 우호날씨로 인해 지속적인 곡물생산이 이루어지나, 유럽의 작황부진이 예상되어 미세하게 상승 마감함
 - 대두 선물가격은 기술적 약세와 큰 변동 없는 시장상황에 하락 마감함

❁ 고소득 농업사례(남도일보, 경북일보)

- ▶ “과학적 영농 실천하면 직장보다 높은 소득 올린다.”
- ▶ 청년 농어업인, 경북이 미래다- 예천군 우리농원 대표 윤여주씨

❁ 사업신청 안내

▶ 2016년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지원 사업자 모집공고

- 신청자격 : 조합,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 선정규모 : 전국 35개소 내외
- 지원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관련 컨설팅 비용, 농가조직화 교육비 보조 100%, 개소당 20백만원 내외
- 접 수 처 : aT광주전남지역본부
- 접수기한 : 8. 25.(화)까지

▶ 제13회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 및 전시회

- 출품 종목 : 호박, 박, 수세미, 동아, 여주 등 박과채소
- 참가신청 : 8. 20.(목) ~ 8. 27.(목)
- 심사일시 : 8. 28.(금) 10:00 ~
- 시 상 식 : 9. 5.(토) 15:30
- 수상작 전시 : 9. 4. ~ 9. 8. / 순천만정원 국제습지센터 1층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8. 17.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8/17)	전주 (8/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9,800	39,800	39,800	42,600	41,187	↓ 6.6	↓ 3.4
	콩(백태)	35kg	139,000	139,000	139,000	142,000	194,960	↓ 2.1	↓ 28.7
	고구마(밤)	10kg	30,400	31,400	34,520	28,150	31,153	↑ 8.0	↓ 2.4
	감자(수미)	20kg	26,000	25,600	26,360	23,200	26,347	↑ 12.1	↓ 1.3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	600	642	-	-	-	-
	양배추	10kg	7,200	7,200	7,120	5,050	7,853	↑ 42.6	↓ 8.3
	오이(다다기계통)	10kg	21,333	24,333	25,155	32,667	31,811	↓ 34.7	↓ 32.9
	애호박	8kg	11,000	19,400	12,160	19,050	19,127	↓ 42.3	↓ 42.5
	토마토	10kg	17,000	15,800	22,280	14,950	20,967	↑ 13.7	↓ 18.9
	무(봄)	20kg	-	14,000	18,600	-	22,920	-	-
	당근	20kg	29,600	30,200	31,000	42,150	35,260	↓ 29.8	↓ 16.1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695,000	764,667	↑ 18.0	↑ 7.2
	풋고추	10kg	25,800	24,800	36,680	36,900	35,533	↓ 30.1	↓ 27.4
	마늘(난지)	10kg	46,000	46,600	48,400	34,000	35,400	↑ 35.3	↑ 29.9
	양파	20kg	27,600	27,600	22,600	10,050	16,336	↑ 174.6	↑ 69.0
	대파	1kg	2,020	2,010	2,154	1,160	1,552	↑ 74.1	↑ 30.2
	파프리카	5kg	13,600	13,200	12,600	18,300	24,537	↓ 25.7	↓ 44.6
	방울토마토	5kg	12,200	13,200	12,880	8,600	14,773	↑ 41.9	↓ 17.4
	수박	1개	15,400	16,000	14,120	10,550	18,000	↑ 46.0	↓ 14.4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67,800	66,800	66,800	91,250	81,417	↓ 25.7	↓ 16.7
	배(신고)	15kg	38,600	39,600	39,600	80,250	58,867	↓ 51.9	↓ 34.4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8/17)	전주 (8/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2,000	532,000	532,000	530,500	548,633	↑ 0.3	↓ 3.0
	들깨	45kg	420,000	420,000	420,000	438,500	347,433	↓ 4.2	↑ 20.9
	새송이버섯	2kg	7,300	7,100	7,760	7,600	7,713	↓ 3.9	↓ 5.4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259	7,139	6,959	6,686	6,392	↑ 8.6	↑ 13.6
	돼지고기(삼겹살)	100g	2,233	2,225	2,288	2,020	1,923	↑ 10.5	↑ 16.1
	닭고기	1kg	5,356	5,149	5,334	5,517	5,898	↓ 2.9	↓ 9.2
	계란(특란)	10개	5,793	5,777	5,805	5,941	5,462	↓ 2.5	↑ 6.1
	우유	1리터	2,548	2,548	2,548	2,549	2,308	-	↑ 10.4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8. 17.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503 천원	5,448 천원	4,371 천원	↑ 1.0	↑ 25.9
	거세	6,741 "	6,867 "	5,587 "	↓ 1.8	↑ 20.7
송아지 (6~7월)	암	2,643 "	2,659 "	1,880 "	↓ 0.6	↑ 40.6
	수	3,240 "	3,261 "	2,704 "	↓ 0.6	↑ 19.8
육우(600kg)		3,144 "	3,473 "	2,950 "	↓ 9.5	↑ 6.6
젖소수송아지(7일령)		279 "	279 "	19 "	↑ 1.5	↑ 1368.4
돼지(110kg)		410 "	452 "	422 "	↓ 9.3	↓ 2.8
육계(원/kg)		1,206 원	1,211 원	1,523 원	↓ 0.4	↓ 20.8
계란(원/특란10개)		1,215 "	1,210 "	1,392 "	↑ 0.4	↓ 12.7
오리(원/kg)		2,333 "	2,333 "	3,342 "	-	↓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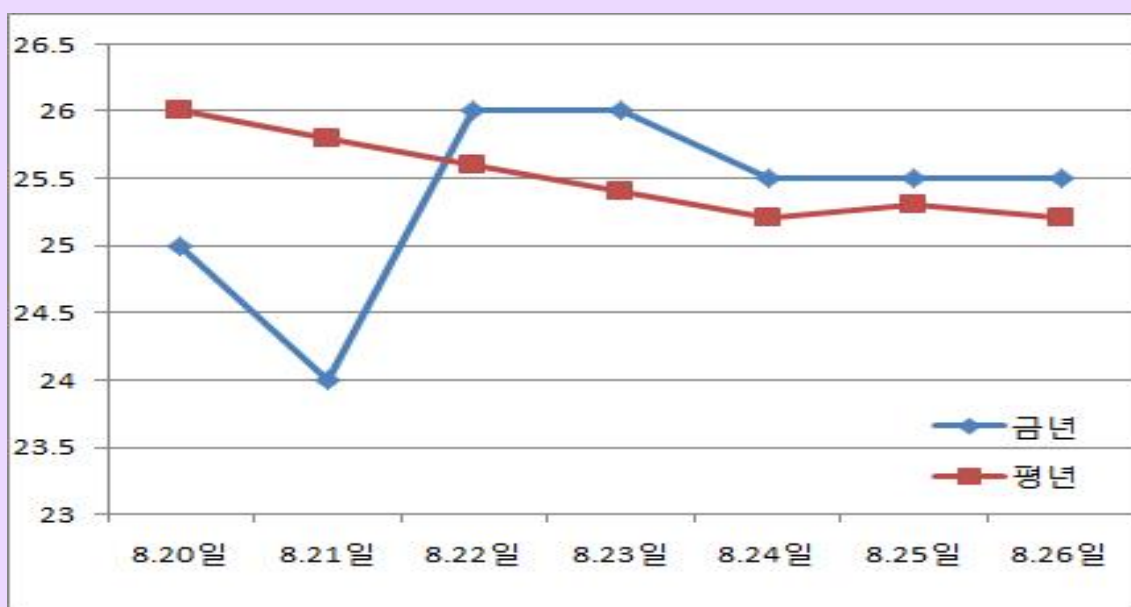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25.4	25.5	-0.1	27.9	29.4	-1.5	22.9	22.6	0.4	7.0
8. 20.(목)	25	26	-1	27	29.9	-2.9	23	23.1	0.1	8
8. 21.(금)	24	25.8	-1.8	26	29.6	-3.6	22	22.9	0.9	6.3
8. 22.(토)	26	25.6	0.4	29	29.4	-0.4	23	22.7	-0.3	6.4
8. 23.(일)	26	25.4	0.6	29	29.3	-0.3	23	22.5	0.5	6.4
8. 24.(월)	25.5	25.2	0.3	28	29.2	-1.2	23	22.3	0.7	7.2
8. 25.(화)	25.5	25.3	0.2	28	29.2	-1.2	23	22.4	0.6	7.4
8. 26.(수)	25.5	25.2	0.3	28	29.2	-1.2	23	22.4	0.6	7.4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재배 동향

토마토·수박 재배 동향

□ 토마토, 8~10월 정식의향 작년보다 감소

- 8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남 강진, 충남 공주에서는 일반토마토 재배농가가 대추형 방울 토마토 등으로 작목 전환하려는 의향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9~10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식 비중이 높은 부산광역시에서의 면적 변화는 크지 않겠으나, 경남 밀양, 전남 보성에서 작년 출하기의 낮은 가격으로 인해 풋 고추 등으로 작목 전환하려는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박, 8월 정식면적 작년보다 감소, 9월은 비슷할 듯

- 8월 시설수박 정식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충북 음성에서 애호박, 토마토 등으로 작목 전환하려는 농가가 증가하여 작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9월 시설수박 정식면적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창녕과 의령에서는 정식의향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정식면적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10월 시설수박 정식면적은 금년 출하기 가격 강세로 주 정식지인 경남 함안에서 정식이 증가하여 작년보다 2%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 감자·당근

○ (감 자)

- 감자(수미) 가격은 전월 및 평년과 비슷한 20,000~25,000원/20kg 전망

○ (당 근)

- 당근 가격은 평년보다 낮은 24,000~29,000원/20kg 전망

양념채소 : 마늘·대파

○ (마 늘)

- 마늘 8월 도매가격은 2015년산 생산량 감소로 평년(3,570원)보다 높으나, 전월 대비 약보합세인 4,600~4,900원/kg 전망

○ (대 파)

- 대파 8월 도매가격은 노지대파 출하량 감소로 평년(1,387원)보다 높은 1,700~1,900원/kg 전망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시·군 농정동향

■ 해남군 로컬푸드 활성화 적극 나서

-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 군은 지난 6월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구축'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데 이어 로컬푸드 마인드 향상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구축 사업은 로컬푸드 직판장과 로컬푸드 레스토랑 운영,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오는 12월까지 추진되는 용역은 해남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드는 것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에도 주력하고 있다.

- 군은 지난 5월에 이어 지난 8월5일에도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로컬푸드 중점대상자 4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 로컬푸드 중점대상자는 소규모 농업인, 특수작물 재배자, 귀농·귀촌인, 하우스농가, 임업인, 여성농업인 등으로, 군은 이들을 로컬푸드 중점관리자로 선정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향후 로컬푸드 사업의 핵심주체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오는 8월11일 김포시와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를 선진지 견학하고, 8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간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로컬푸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농산물 꾸러미 마케팅 교육과 직매장 활성화 교육, 로컬푸드 추진 활성화 방안 연구 포럼회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군 관계자는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12월 용역 결과에 따라 직매장 위치를 선정하고 건립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닷컴

■ 강진에 ICT 융합한 창조마을 조성

- 성전면 녹향월촌 권역, 농림부 시범지구 선정 -

- 강진군은 10일 성전면 녹향월촌권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행복한 농촌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전국 31개 권역에서 신청해 1차 12권역, 최종 6개 권역이 선정됐으며, 6개 권역중 녹향월촌 권역이 포함된 것이다.
-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시행하며 8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컨설팅업체와 KT, SKT 등 정보통신기술 전문가와 협력해 녹향월촌권역인 9개 마을을 연계하는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구축할 예정이다.
-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객들에게 계절·유형별 프로그램 안내와 예약, 홍보문자 발송 등 관광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 농·림·축산물 판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진원 강진군수는“지역의 소득증대와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관광, 의료, 유통, 농업 등 모든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기반 시설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무등일보

■ 장흥 유치면 ‘유기농 100% 지역’ 도전

- 이 지사, 10일 유기농 현장 방문해 친환경농가 격려 -

-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10일 ‘유기농 100% 지역 만들기’에 도전해 화제가 되고 있는 장흥 유치면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친환경 농가를 격려했다.
-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에서는 중앙보다 1년 빨리 올해를 유기농업 원년으로 선포하고 유기농 직불금, 친환경쌀 학교급식 확대 등 친환경 농업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치면의 유기농 100% 지역 만들기 도전은 다른 지역 유기농업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기농업 실천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고 꼭 목표를 달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장흥 유치면은 현재 18개 마을에 1천 200여 명이 살고 있다. 장흥댐 상류지역 수변구역이어서 축사나 공장 등 특별한 오염원이 없어 전남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손꼽힌다.
- 이런 특성을 살려 유치면은 경작 면적 456ha의 50%에 이르는 230ha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며, 앞으로 3년간 전체 면적을 유기농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한편 유치면은 그동안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성공적인 유기농 100% 지역 만들기를 위해 유기농 생태 순회교육과 결의대회를 5차례 개최하고 마을별 순회 유기농 실천 간담회도 18차례나 실시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완도, ‘친환경 농업’으로 경쟁력 배가

- 바이오기능수 이용 생산기반 확대 -
- 소득작목 발굴 기후변화에도 대응 -
- 완도군이 한·중 FTA체결 등으로 인한 농업의 위기를 농산물 품질로 극복키로 하고, 대안으로 ‘친환경’에 주력키로 했다.
-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 해소

와 농수축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환경친화 브랜드인 '완도자연 그대로'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개발, 완도 농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고 있다.

- 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에 주력, 바이오기능수와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권역별 지역특화 작목육성 등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현을 위한 방안을 실천중이다.
- 먼저 농업기술센터는 상추, 고추, 포도, 표고버섯, 방울토마토 등 다양한 작목에 바이오기능수를 이용한 농업의 효과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 바이오기능수란 바이오기능수 생성장치에 물을 통수시켜 생성된 물로 세포의 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세포면역활성수다.
- 바이오기능수를 지속적으로 관수할 경우 작물의 생육촉진 및 병해충 발생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다양한 작물을 대상으로 실증시험을 추진 중에 있다.
- 그 결과 상추는 실증시험 현장평가회를 통해 일반수에 비해 경도 16.1%, 엽수 7.7%가 증가, 병해충 발생은 22.2%가 감소하는 등 종합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앞으로 타 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실증시험과 결과분석을 통해 효과를 DB화하고, 현장에 접목한다는 방침이다.
-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용미생물 배양시스템을 구축, 광합성균, 고초균, EM활성액, EM액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관내 농업인에게 매년 30톤에 한해 무상 공급하고 있다.
- 유용미생물은 친환경 유기농업의 내실화와 저비용 고소득 농업의 대안이다.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의 오남용을 막고, 토양 속 미생물의 밀도를 증가, 토양의 생태계를 회복시켜 작물의 생육촉진,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 증대, 과실의 상품성 향상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권역별 특화작목 발굴 육성도 완도군의 농업위기극복 대안 중 하나다. 지역 대표 작물로 성장시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4개 권역으로 단지화했다. 완도읍권은 참다래, 방울토마토, 비파, 딸기, 노화읍권은 고추, 구절초, 감귤, 금일읍권은 유자, 더덕, 청산면권은 마늘, 더덕, 고사리 등을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 기후변화가 불리울 농업분야 위기 극복 방안으로는 커피나무, 올리브 등 아열대작물의 지역적응시험을 위해 아열대과수 실증시험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추진, 농가에 보급하여 새소득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위윤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농산물 생산은 새로운 기회”라며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과 권역별 지역대표 작목을 발굴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매일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15.1~7월, 농식품 수출 35.3억불, 전년 동기대비 0.5% 감소

- 중국·미국·E U 등 FTA 체결국 수출 증가, 일본·홍콩·대만 등 수출 감소 -

- 조제분유의 지속적인 수출 증가와 더불어 지난 6.2일 우리나라 3개 유업체 가공공장*이 중국 정부에 등록되면서 생우유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7월부터 수출을 재개하는 등 생우유 수출이 늘고 있다.

* 매일유업(상하공장), 서울우유(거창공장), 연세우유(아산공장)

* 생우유 7월 수출실적 : 약 33톤 5.5만불

- 또한, 아이스크림 수출이 늘고 있는데, 이는 계절적 영향 외에도 중국진출 기업 확대(기존: 롯데·빙그레·라벨리 → 추가: 해태), 막대형인 중국산과 차별화한 튜브형 포장 등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에 수출되는 한국 튜브형 아이스크림>



□ (미국) 베이커리 제품과 삼계탕 수출 증가세

※ '15.1~7월 기준, 미국 수출액 348,692천불 (전년 동기대비 6% ↑)

- 베이커리 제품 8,393천불(57% ↑), 삼계탕 2,639(28,512% ↑)

- (베이커리 제품) 프랜차이즈 업체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면서

맛의 표준화를 위해 냉동생지 등의 수출이 늘고 있다.

* 미국 진출 베이커리 관련 외식업체 : ('14) 약 107개 → ('15.7월) 약 125개

- (삼계탕) 지난해 7월 미국으로 처음 수출된 이후 금년도 뉴욕 식품박람회(6.28~30)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7월 복날을 맞이하여 교민 마켓을 중심으로 판촉 홍보를 강화한 결과, 현지 소비가 확대되었다

* 복날맛이 삼계탕 판촉행사(7.19~13) : 한남체인, H-mart 등 LA 주요 한인마켓



시식 홍보대



홍보 팸플렛 및 시식 전시상품

- (EU) 한류 · 밀라노 엑스포 등의 영향으로 한식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김치 · 라면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 '15.1~7월 기준, EU 수출액 203,538천불 (전년 동기대비 13% ↑)
- 라면 11,042천불(22.4% ↑), 김치 2,625(21.4% ↑)

- (김치) 이탈리아 밀라노 엑스포('15.5.1 ~ 10.31일)에서 김치를 홍보한 영향과 국내 외식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확대에 힘입어 현지 김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 국내 외식기업의 EU 진출 현황 : ('13) 비비고 · BBQ 등 9개 매장 → 12개

- (라면) 특히, 영국에서 한국산 라면이 아시안 식품코너가 아닌 면류코너에서 판매되는 등 현지인의 일상식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 영국의 경우 15. 7월 누계 라면 수출액이 3.5백만불로 전년대비 40.8% 증가

□ (GCC) 할랄인증 획득 등으로 비스킷·김치 중심 수출 증가

* GCC :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 '15.1~7월 기준, GCC 수출액 224,594천불 (전년 동기대비 24% ↑)
- 비스킷 5,276천불(43% ↑), 김치 427(9% ↑)

○ 수출업체의 할랄인증 획득 노력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김치의 경우 한인 마트 중심에서 현지 대형유통업체로 유통 채널이 확대되고 있다.

* 김치 판매 현지 유통채널 : 까르푸, Spinneys, Waitrose 등

* 할랄인증 업체 : (비스킷) 롯데제과·오리온·크라운해태제과 등 3개,
(김치) 대상FNF, CJ, 한성김치, 아워홈 등 4개 업체

[수출 감소국 현황]

□ (일본) 신선농산물·제3맥주 수출 감소, 들기름 인기 지속

※ '15.1~7월 기준, 일본 수출액 695.3백만불 (전년 동기대비 △10.2%)
- 감소품목 : 제3맥주 70.6백만불(△19.7%), 파프리카 51.9(△5.9%), 화훼류 6.9(△42.0%)
- 증가품목 : 들기름 10.6백만불(14,758% ↑), 토마토 5.4(11.0% ↑)

○ (신선농산물) 엔저 영향으로 주요 수출품목인 파프리카·화훼류의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토마토는 경쟁국인 미국산과 뉴질랜드산 공급 물량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산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 (제3맥주) 와인·가향주·술 맛나는 음료 등 다양한 음료·주류가 현지에 소개되면서 맥주 소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역 하우스 맥주 등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소비가 확대되면서 저가 주류인 제3맥주 소비가 주춤하고 있다.

- (들기름) '15.2~3월간 일본 TV 프로그램(TV도쿄, 아사히방송 등)에서 오메가-3 성분이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집중 방영되면서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들기름이 7월에 NHK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 관련 내용이 추가 방송되면서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대만·홍콩) 홍삼 수출 감소, 비스킷·삼계탕 수출 증가

- ※ '15.1~7월 기준, 홍콩 수출액 205,641천불 (전년 동기대비 △4%)
 - 홍삼 19,657천불(△17%), 유자차 3,049(△11%), 비스킷 7,524(17%↑)
- ※ '15. 1~7월 기준, 대만 수출액 131,081천불 (전년 동기대비 △1%)
 - 홍삼 10,146 (△29.5%), 삼계탕 611(49%↑)

- (홍삼) 전년도 재고분 영향과 한국 원삼 가격상승으로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광둥성)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였다.

* 국내 생산량 : (12년) 26천톤 → (14년) 21천톤 → (15년 전망) 20.8천톤

- (비스킷) 홍콩 대형 슈퍼마켓 체인 '파킨샵' 스낵 전문코너에 한국산 과자류가 입점되는 등 유통 채널이 확대되고 있다.
- (삼계탕) 한국산 삼계탕이 대만에서 건강식품으로 인지도를 높여가면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 (아세안) 팥이버섯·새털 수출 감소, 음료는 인기

- ※ '15.1~7월 기준, 아세안 수출액 603,723천불 (전년 동기대비 △6%)
 - 새털 43,050천불(△63.7%), 팥이버섯 2,409(△41%), 음료 40,438(40.7%↑)

- (새털·팥이버섯)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內 글로벌 의류업체의 현지공장 이전 영향으로 새털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탕류 재료로 주로 쓰이는 팥이버섯은 계절적 영향과 국내 도

매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 팡이버섯 국내 도매가격 : (14.7월) 1,390원/kg → (15.7월) 1,696원(전년 동기대비 22% ↑)

- (음료) 베트남에서 한국산 쌀음료가 식사대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금년 처음으로 출시된 커피음료가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되면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 對 베트남 쌀음료 수출액 : (14. 7월) 514천불 → (15. 7월) 545천불(5.9% ↑)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가소득 직결 신선농산물 수출 '주춤'

- 박민수 의원 분석, 수출량 증가 불구 금액은 감소 -

-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이 최근 들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신선농산물 수출물량은 증가했지만 물량대비 수출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신선농산물 수출은 5년전인 2010년에 32만9천톤 수출에 8억7천400만 달러였으나, 2014년 현재 41만9천톤에 11억 2천100만 달러로 각각 27.4%, 28.2% 정도 증가했다.
- 그러나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물량은 14% 가량 증가했지만 수출금액은 5천900만 달러나 감소하는 수준에 그쳤다. 올해 6월 기준 수출량은 15만8천톤에 금액은 4억5천700만원에 불과했다. 물량은 2013년 대비 14.2%나 늘었지만 금액은 오히려 0.05% 정도 감소했다.
- 이에 대해 중국, 대만, 아세안에 대한 수출금액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아 일본의 엔화약세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 중국 수출단가 가장 낮아

- 주요 수입국 가운데 신선농산물 수입량과 수입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17억6천400만 달러에 48만1천700톤을 수입했다. 중국은 같은 기간 동안 36만4천700톤 8억3천20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아세안은 29만2천200톤에 10억2천209만 달러를 기록했다.
-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량은 아세안보다 7만2천500톤이나 많았지만 수출액에서는 1억9천207만 달러가 적어 수출량 대비 수출액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선농산물은 주로 일본, 중국, 아세안, 홍콩, 대만 등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에 치중됐다. 미국과 EU에도 수출이 되기는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 수출단가(톤당 수출가격)가 가장 낮은 국가는 중국으로 톤당 수출가격이 2천276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단가가 가장 높은 국가는 홍콩으로 톤당 5천435달러 였다.
- 일본이 3천662 달러, 아세안이 3천500 달러, 미국이 3천99 달러, EU 2천686 달러, 대만 2천634불 등의 순이었다.
-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수출단가가 낮다는 것은 같은 농산물이라도 제 가격을 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중국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우리 농산물 가격 경쟁력이 더 약화될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 화훼류 수출 부진 심각

- 품목별 수출물량으로 보면 김치, 파프리카, 닭고기, 배, 화훼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분석결과, 화훼류의 수출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류는

2010년까지만 해도 1만2천500톤에 1억310만 달러를 수출함으로써 물량대비 수출액이 톤당 8천248 달러이던 것이 2014년에는 5천300톤에 4천60만 달러로 톤당 7660 달러로 떨어졌다.

- 물량 대비 수출액 가치가 가장 높은 품목은 인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은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만5천톤에 9억500만 달러를 수출함으로써 톤당 3만6천373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가장 많은 양을 수출된 김치는 톤당 3천544 달러에 불과했다.
-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일본의 경우에는 엔저 극복을 위한 마케팅 등 지원 강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선농산물 허용농약 정보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 제값 받는 대책 마련 시급

- 박 의원은 “중국은 지역별로 식품소비패턴이 달라 지역별 수출전략이 필요하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의 수집과 제공이 절실한 상황이며 우리나라 식품의 중국의 서부 내륙시장 진출을 위한 냉장물류 구축이 상당히 미흡한 만큼 물류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또 통관시 지역별로 라벨링 규정이 다르거나 규정 변경이 잦아 수출업체 대응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검역 문제로 신선 농산물 수출확대에 애로가 많은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국정부와의 협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박 의원은 특히 “정부에서 수출을 장려하고 농업인이 수출하려고 해도 정부 차원에서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수출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면서 “신속한 애로사항 해결과 농산물이 수입국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전업농신문

6.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전남농기원, 벼농사 왕우렁이 방제 방법 및 대책 밝혀

- 관행재배 논 왕우렁이 피해 경감 가능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벼 친환경재배에서 가장 경제적인 잡초방제로 새끼왕우렁이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가운데 관행재배 농가에서 겨울동안에 살아남은 왕우렁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제방법과 대책을 밝혔다.
- 친환경잡초관리에는 경종적, 생태적, 생물적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나 친환경농가 대부분이 왕우렁이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 왕우렁이를 이용한 잡초관리는 물 속에 있는 잡초를 잘라먹는 습성을 이용한 방법으로 방제효과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일반 화학제초제보다 40~50% 비용이 절감되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어 우렁이가 ‘논 잡초 방제의 상머슴’으로 통한다.
- 논 잡초 방제효과와 경제성이 검증된 새끼왕우렁이 농법은 2009년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 보급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친환경재배 단지는 물론 일반재배 면적을 포함하여 약 10만ha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최근 남부 일부지역 벼 재배 농가에서 월동한 왕우렁이가 어린 벼 잎을 가해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 왕우렁이의 원산지는 아열대지역으로 영하 3℃에서 3일, 영하 6℃에서 1일의 환경에서는 월동이 불가능해 겨울철에 모두 동사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겨울철 온난화로 물이 깊이 고인 수로나 저수지에서 생존한 개체들이 발견되고 있다.

- 왕우렁이 피해는 주로 담수직파나 어린모 이앙재배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수로 등에서 월동한 왕우렁이가 논으로 유입해 벼 잎과 줄기를 가해하는 피해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왕우렁이 피해예방을 위해 시험한 결과, 벼에 사용 가능한 살충제 카답하이드로클로라이드입제 4~6kg/10a 정도를 살포하면 99% 이상 방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 따라서 전년도에 왕우렁이가 문제시 된 지역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약제를 처리하고 벼씨를 파종하거나 이앙해야 왕우렁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최덕수연구사는 "친환경재배에서 왕우렁이 만큼 잡초방제효과가 탁월하고 실용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 교관요원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왕우렁이 방제 방법 및 대책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증시험을 통해 월동 왕우렁이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흰 무궁화, 골다공증 억제에 효과 있어

- 세포실험 결과...천연물 유래 치료개선제 개발에 도움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흰 무궁화 꽃 추출물이 골다공증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세포실험을 통해 밝혔다.
- 무궁화는 항산화 물질과 설사, 위장염, 급성·만성 대장염 등의 치료에 이용돼 왔다. 특히, 꽃이 큰 흰 무궁화 꽃은 사포나린¹⁾이 많이 들어 있어 약용으로 사용해 왔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사포나린 성분을 가진 흰 무궁화 꽃이 골다공증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세포실험을 했다.
- 흰 무궁화의 성분 분석 결과, 꽃에는 잎이나 줄기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사포나린 성분과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뼈조직을 파괴하고 칼슘을 뱉아내는 파골세포에 세포안정성 수준2)의 농도로 무궁화 잎, 줄기, 꽃 등의 추출물을 처리했다.
- 그 결과, 100 μ g/ml 농도에서 무궁화 흰 꽃에서만 골다공증 지표 (TRAP3))의 활성이 대조군에 비해 60.26% 감소했다.

* 대조군(100%), 50 μ g/ml(47.28%), 100 μ g/ml(39.74%)

- 또한, TRAP과 칼시토닌 수용체(파골세포의 지표 중 한 물질) 유전자 발현을 막아 성숙한 파골세포 활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연구 결과는 특허출원4) 했으며, 국내학술지(한국약용작물학회지, 2015. 6)에 게재됐다. 앞으로 특정 성분 분리와 동물실험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고령화 사회의 노인성 골 질환 중 하나인 골다공증 치료와 개선을 위한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로, 이번 연구 결과는 천연물 유래 건강기능성 식품과 치료제 개발 분야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 인삼특작이용팀 김진성 박사는 “무궁화 흰 꽃 추출물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과 천연물 신약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골다공증 억제와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흰 무궁화 꽃의 추출물을 이용한 치료법과 개선제 연구 개발로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고온기 피수박 발생 이렇게 예방해요

- 충북농업기술원, 하우스 내부 온도, 관수시기 등 환경관리 철저 당부 -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차선세)은 6월에 정식하여 고온기에 착과되고 수확하는 여름 수박의 착과율 향상과 피수박 발생 억제를 위해 하우스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여름철 고온기에 자라 8월에 수확하는 수박은 온도가 높고 생육속도가 빨라 수정부터 수확까지 약 30~35일 정도 소요된다. 이때 피수박이 발생하는데, 발생원인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우스 내부의 온도이다.
- 급격한 온도 상승과 고광도는 잎, 과일의 온도를 상승하게 하고, 이는 세포생리 기능을 손상시켜 피수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과일 비대기에 수분 과다도 지온 상승으로 이어져 과일 온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어 세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 예방 대책으로는 적과 후 기상을 보아 40~50% 차광막을 설치하여 하우스 내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환풍기 등을 설치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함이 중요하다.
- 관수 시기는 식물체의 온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가능한 한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 실시하며, 한낮 정오 관수는 피한다. 토양 속 수분이 지나치게 많지 않도록 조금씩 자주 관수하는 것이 좋다.
- 피수박의 상태는 식용부위 과육 색이 붉은 핏빛으로 보이고 육질이 무르며, 시큼한 술 냄새가 나나 겉으로 보기에는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렵다. 잘 익은 수박을 두드려 보면 탱탱한 청명한 소리가 나는 반면, 피수박은 나무를 치는 소리(딱딱)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 여름철 고온기에는 해충도 많이 발생한다. 어린잎을 가해하는 총채벌레, 늙은 잎부터 피해를 주는 응애, 수확기 과일을 갉아먹는 청벌레등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자주 상태를 살피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 충북농업기술원 수박연구소 김태일 박사는 “여름철 고온기 질 좋고, 맛 좋은 수박 생산을 위하여 수박하우스 환경관리와 병해충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 하였다.

* 출처 : 충북농업기술원

■ 일시 수확형 샐러드용 상추 연구 개발

-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웰빙 트렌드와 핵가족화에 따라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소비패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신선하고 손질이 간편한 일시 수확형 샐러드용 상추 품종선발과 재배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 상추는 전국 재배면적이 3,587ha에 이르며, 이는 신선 잎채소 중 배추 다음으로 많은 재배면적이다. 우리나라 전체 쌈채소 중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추는 93%가 수분이고 비타민, 철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며 정신안정, 진통억제, 불면증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식품이다.
- 일시 수확형 샐러드용 상추는 한 번에 수확이 가능한 샐러드 전용 상추로서, 기존 잎상추 수확 시 들어가던 힘든 노동력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다. 또한 한 번에 손질해 신선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요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현재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상추는 샐러드 재료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샐러드 전용 상추 품종이 개발되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샐러드 전용 상추 품종의 개발과 보급이 미미한 실정으로, 샐러드용 상추로 적합한 품종선발을 시작으로 품질과 수량성 향상을 위한 기술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 도 농업기술원 김은지 연구사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샐러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 샐러드용 상추의 주년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연구와 국내 샐러드 전용 상추의 품종 개발 및 소비 촉진을 도모하여 틈새 효자작목으로 부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북농업기술원

■ 내년도 고추품종 선택은 현장에서!

- 시험포장 현장에서 품평회 열어, 고추 신품종 직접 보고 선택 기회 제공 -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8월 7일(금) 오전 9시, 영양고추시험장과 영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고추 품종평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농업인, 대학교수, 고추 육종회사, 관련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배 애로사항, 품종 선택방법 등 유익한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한다.
- 특히, 매년 150여종의 새로운 고추 품종이 종자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수량, 병해충, 생리장해, 품질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농업인들은 좋은 품종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영양고추시험장은 다양한 품종을 재배해 전시하고, 풋고추와 홍고추를 직접 현장에서 보고 품종을 선택을 할 수 있으며 현장 재배 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

- 
- 평가회에서는 영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고추농사에 대해 종합평가’와 ‘고추 품종 특성과 고추 재배기술’에 대한 특강이 있고, 영양고추시험장에서 국내 8개 종묘회사의 시험재배와 전시포 83개 품종에 대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 또, 주요 품종별 홍고추 전시, 신기술 재배화판, 육성품종 홍보 등 볼거리를 제공해 고추 재배농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박소득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고추 종합평가와 품종소개, 현장평가를 통해 품종별 생육상황, 병저항성 검정, 매운맛, 당, 색깔 등을 분석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고추 품종을 선택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우량품종 선택기회와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출처 : 경북농업기술원

7. 정책동향

◆ 전남도, 농식품 산업화 역량 모은다

- 농업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 등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키로 -

- 전라남도가 농업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농식품 산업화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전라남도는 농업 관련 사업소·출연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관련 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나주 식품산업연구센터에서 미래 농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간담회는 농업 관련 연구·출연기관, 정부 공기업 등과 소관 업무를 상호 공유하면서 입체적이고 확대 지향적으로 협업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참석자들은 ▲과잉생산 농산물 활용 제품화 ▲친환경 미생물제제 산업화 ▲곤충자원 산업화 ▲미래 기능성 유용자원 발굴·육성 ▲농생명 기능성 소재 첨단산업화 ▲천연물의약산업 실용화센터 구축 ▲K-Food 시제품 및 국내외 판로지원 ▲유희간척지 사료작물 재배 확대 ▲친환경 농산물 수출확대 ▲농식품 전문가 포럼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또한 국내 식품 제조업과 외식업 등 식품산업이 매년 6% 이상 성장하는 점을 감안, 전남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식품 산업화 연계방안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정부 공기업, 농협, 농관원, 도 출연기관, 전문가 그룹 등이 참가하는 ‘농업 관련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미래 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박균조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 농협, 정부 출연기관 등과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시책들을 적극 검토해 내년 신규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 농업 6차산업 우수사례 전남 2곳 전국 유일

- 농식품부 경진서 담양 두리영농조합법인·장성 백련동농원 선정 -

-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한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담양 두리영농조합법인과 장성 백련동농원을 포함한 전국 10개소가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전국에서 2곳이 선정된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 선정된 경영체에 대해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진대회 과정을 기획 홍보하고, 우수 사례집과 동영상, e-book 제작은 물론 인터넷 누리집에 게재해 소개한다.
- 언론(한국농어민신문 등)을 활용한 6차산업 우수사례 탐방 관련 기획시리즈 홍보 및 기자, 방송작가 등 팸투어 장소로도 활용된다.
-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농업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우수한 6차산업화 성공모델을 발굴해 널리 알리기 위해 ‘6차산업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6차산업 우수모델 발굴은 물론 대외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전남농업 6차산업 지원센터’를 통해 자발적인 6차

산업 참여를 확대 유도해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제고 및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 박균조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2개소는 고집스러울 만큼 정직하게 먹을거리에 바친 가치 있는 소신과, 가족의 진솔한 이야기가 심사자와 패널의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국에 손꼽히는 우수사례를 꾸준히 발굴해 지역만의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만드는 등 6차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 「국립종자원·GSP 채소종자사업단」 민·관 협업으로 국내채소종자 수출 확대 지원!

- 국립종자원은 국내 채소종자 수출확대를 위해 ‘GSP 채소종자사업단’과 공동으로 ‘2015년 GSP 채소종자사업단 해외 시범포 사업’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업내용은 GSP 채소종자사업단 육성품종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해외 시범포를 조성하고, 현지 바이어 및 대농가 등을 초청하여 생육평가회(Field Day) 및 수출상담을 추진한다.
- 해외 시범포 조성지역은 채소 주력수출 시장을 대상으로 종자업체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선정된다.
 - 올해에는 중국 4지역(하북, 운남, 호북, 광둥) 2작물(무, 배추)을 추진하고 인도, 동남아 지역 등으로 고추, 수박 등을 추가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 ‘15년 해외시범포 사업 신청규모 : 중국내 4지역 12업체 2작물 110품종

- 국립종자원의 해외전시포 조성·운영의 경험과 노하우를 채소종자 업체와 소통·협업하여 ‘GSP 채소종자사업단 해외시범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 3.0’인 서비스 정부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종자원은 ‘11년부터 중국, 인도 등지에서 국내에서 육성된 채소류 900여 품종에 대해 해외현지 전시포를 설치운영해 채소종자 수출을 지원해 왔으며
- 특히 ‘GSP 채소종자사업단 해외시범포 사업’은 SNS를 활용하여 해외시범포 생육현황을 국내종자업체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종자산업 관련 민관의 협업과 소통으로 종자 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2022년 종자수출 2억불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농식품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 이달 31일까지

- 정부가 하반기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특별 공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특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공모는 3가지 분야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저해하는 규제, 과도한 행정절차 요구 등으로 농·식품 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ICT·BT) 등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설정된 규제 등이다.

- 이번 규제발굴을 위해 기존 농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소속·유관기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4-H본부 등 37개 농·식품 관련 단체·협회의 참여를 병행한다.
- 아울러 귀농·귀촌인,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등 농업현장에 새롭게 진출한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특별공모 참여 유도를 위해 우수 제안자에게 소정의 사례금이 지급된다. 참여는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afra.go.kr)와 규제개혁 신문고(www.better.go.kr)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보조금법 개정안 통과...보조금 최대 3년 지원, 재평가후 연장

- 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정산보고서 등 공개해야 -
- 부정수급 사후제재 강화...수급금 5배 부가금 부과 -
- 앞으로 국고보조 사업의 일몰제가 강화되고,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는 등 국고보조사업 관리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 이번 국고보조금 개혁은 방만한 국고보조금 운용이 재정누수의 주요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 및 올해 24개 핵심 개혁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보조사업의 사전적 관리 효율화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적 제재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 정부는 우선 사전적 관리효율화를 위해 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해 보조 사업에 대해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정해 3년 후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토록 했다. 다만, 존속기간 종료 이전에 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었다.
- 이와 함께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사업 관련 세부 내용인 보조사업 개요,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감사 지적사항 등을 향후 구축 예정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특히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시켰다.
-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련 내용을 부기등기 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과 중앙관서의 승인을 통해서만 양도·대여·담보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수록된다.
- 아울러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제재가 강화된다. 보조사업자나 보조금 수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토록 했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8. 해외 농업정보

◆ 미국, FDA 설탕함유식품표시 관련 규정안 발표

- FDA는 포장식품의 영양성분표의 설탕함유량 표시와 관련한 규정안 제안을 발표함. FDA에서 제안한 금번 규정은 2014년 3월 3일 식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양성분표에 첨가당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한 보충 내용임.
- 기존에는 단순히 설탕함유량을 그램으로 표기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일 기준치 비율(Percent Daily Value(%))로도 표기하여야 함. 1일 기준치 비율은 설탕함유로 인한 칼로리가 전체 칼로리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권고할 예정임.
- 이는 설탕이 식품 및 음료에 함유되는 경우, 영양가 없이 칼로리만 높인다는 독립적 자문위원회인 DGAC(Dietar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설탕함유량이 전체 칼로리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한 것임. 또한 FDA는 본 규정안은 적은 양의 설탕이 첨가된 식품과 음료가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밝힘.
- FDA는 식품 영양성분 표시제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1일 기준치 비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번 설탕함유량 표시 또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 FDA관계자에 따르면 FDA는 지금까지 소비자들이에게 지속적으로 설탕함유량을 감소시킬 것을 권고하여 왔으며, 금번 식품 영양성분 표시제 개선의



목적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권고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힘.

- 현재 영양성분표에는 총 지방함량,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 탄소화물, 식이섬유, 칼슘, 철분의 하루 할당량이 표기되고 있음.
- FDA는 본 규정안과 관련된 대중의 의견을 75일 동안 수렴할 예정이며, 2014년도에 발표한 식품라벨 관련 규정안을 60일 동안 공개할 예정임.
- 미국 내 소비자들은 건강과 관련하여 더 신뢰성 있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FDA는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신장을 위하여 제도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식품표시제와 관련하여 식품업체는 변화하는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이러한 식품업체를 선호하는 트렌드는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GMOs 등 식품 안전성관련 이슈가 화두가 됨에 따라 소비자의 식품표시제에 대한 관심과 관련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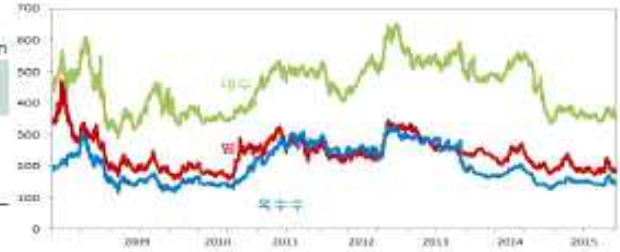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8. 17.(시카고 선물거래소)

대두가격 다시 하락, 주간 손실 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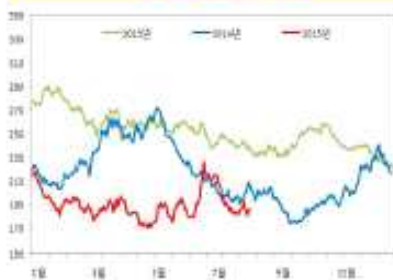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8.14)	전일대비	전월평균 ('15.7)	2014 평균
밀	186.07	▲0.6%	201	216
옥수수	143.30	▲0.1%	160	164
대두	359.49	▼1.5%	372	455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결선: SRW), 옥수수(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9월물, 대두: 8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전일에 이어 강보합 마감함. 프랑스농축산사무국(FranceAgriMer)에 따르면 가뭄 및 건조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산 연질밀은 올해 약 4천만톤을 기록했으며, 범세계적으로 과잉공급량과 9월 계약금 유지 등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미세하게 상승 마감함. 미국 중서부 지역 우호날씨로 인해 지속적인 곡물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유럽지역 작황이 양호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짐.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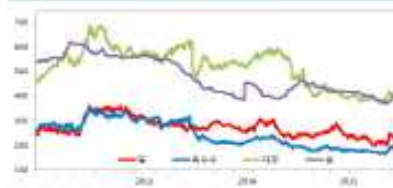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기술적 약세와 큰 변동성은 시장상황에 하락 마감함. 기대 이상의 대두 수확과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한 중국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가격 하락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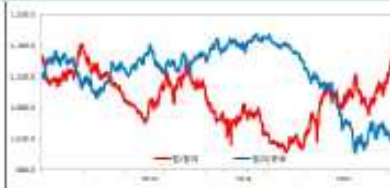
관련동향

- 미국산 곡물 수출가격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
- Brent 유가는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한 반면, WTI 유가는 미국과 멕시코 간 원유 스왑 소식 등의 영향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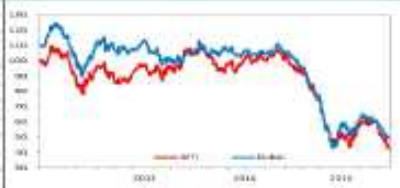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05	▲2.0%	환율	원/달러	1190.3	▲1.7%	
	옥수수		166	▲1.8%		달러/유로	1,1156	▲1.0%	
	대두		374	▲1.9%		WTI	42.5	▲0.6%	
	쌀		380	-		Dubai	49.43	▼0.9%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S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9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8.13(수출가격), '15.8.13(환율), '15.8.14(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인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일제이드 노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3) 8월 14일 광복절 대체휴일로 한국은행 휴무.

9. 고소득 농업사례

■ “과학적 영농 실천하면 직장보다 높은 소득 올린다”

- 장성 황룡서 ‘저온성 화훼’ 알스트로메리아·쌈채소 등 재배 -
- ‘배려와 새로운 만남’의 꽃말을 지닌 알스트로메리아(Alstromeria)를 아시나요?
- 남미가 원산지인 저온성 화훼 알스트로메리아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아직 생소한 꽃이지만 국제 화훼시장에서는 화려하고 품종이 다양해 크게 각광받고 있는 꽃이다.
- 전남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에서 36년째 영농일지를 쓰며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신도 과학영농을 실천해 가는 이가 있다.
- 주인공은 상추·특수채소·화훼농사 1.6ha를 짓고 있는 이준홍씨(37). 이씨는 지난 2004년 귀농해 농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써온 영농일지를 11년째 쓰고 있다.
- 이 대표는 A4 크기의 종지로 365장을 엮어 3년간 영농일지로 사용한다. 매장마다 3구획으로 나뉘 맨 위는 2013년, 가운데는 2014년, 맨 아래는 2015년 일지를 쓴다. 영농일지 한권을 보면 3년간 농사 통계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통해 만든 것이다.
- 영농일지에는 날짜별로 날씨와 온도, 주요 농작업 내용, 영농비 지출내역, 수취 값 등이 꼼꼼히 기록돼 있다.
- 이 대표는 “영농일지를 쓰면서 날씨와 시세차이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됐다”며 “친환경 상추와 특수채소의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 이 대표가 과학영농을 실천하며 짝짤한 소득을 올리자 도시에서 인테리어 일을 하던 형도 귀농해 아버지와 함께 화훼농사를 짓고 있다.
- 11년 전에 귀농해 알스트로메리아를 재배하고 있는 이 대표는 “아버지를 본받아 영농일지를 쓰고 있는데 농사를 배우는 데 귀중한 연구자료가 되고 있다”며 “특히 재배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꼼꼼히 기록해 놓으면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인테리어업을 하다 귀농한 형 혁재씨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영농을 실천하면 직장생활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며 “아버지·동생과 힘을 모아 유통과 관광을 아우르는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알스트로메리아는 품종과 다양한 색상이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합과 닮은 꼴인데 꽃잎에 점들이 있다.
- 이 대표는 “알스트로메리아는 고온 재배가 필요치 않는 저온성 작물로 고유가 시대에 유통비가 절감되고 병해충에 강해 생산비 절감 효과가 높다”며 “한번 식재 하면 5년 이상 연중수확이 가능하고 재배 관리가 용이해 매력적인 화훼품목으로 꼽히는 효자 꽃”이라고 강조했다.
- 꽃이 화려하고 색깔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어느 꽃과도 잘 어울려 꽃꽂이, 부케, 화환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알스트로메리아는 3년생 일 때 가장 수확량이 많다고 한다.
- 특히 알스트로메리아 장점은 꽃이 오래간다는 것, 30여일을 화려한 웃음으로 보답하는 알스트로메리아는 모든 꽃꽂이에 바탕이 된다는 것도 수요가 많은 이유다.

- 이 대표는 “1년 내내 수확이 가능하지만 여름에는 크게 수요가 없어 휴면 상태에 돌입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꽃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좋은 편”이라며 “가장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9월부터 이듬해 2월, 결혼, 졸업시즌이 겹친 시기”라고 귀띔했다.
- 이 대표는 젊은 귀농귀촌인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 “저도 부모님의 권유로 알스트로메리아를 재배하던 것을 물려받아 일을 배우게 됐지만 젊은 혈기만 가지고 귀농귀촌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정말로 귀농귀촌을 하고자 한다면 사전조사를 하고 시골을 오가며 2~3년간 시물레이션을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귀농귀촌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장성쪽으로 오게 된다면 자신이 겪었던 경험들을 다 알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 출처 : 남도일보

■ 청년 농어업인, 경북이 미래다— 예천군 우리농원 대표 윤여주씨

- "농·축산 생산~유통까지 6차 산업 통해 부가가치 높일 것" -
- 예천군 용문면 사부령길에서 역대 부농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귀농인이 있다.
- 그는 지난 2007년 4월 귀농해 오미자, 복분자, 한우, 벼농사 등 복합 영농을 하는 우리농원 대표 윤여주(50)씨이다.
- 지난 2006년까지 잘나가던 대기업(쌍용 자동차)을 퇴사 후, 개인 사업과 사촌동생 사업 등을 돕다 먼저 귀촌(1984)한 아버지의 권유로 예천군으로 귀농을 했다.

- 현재 윤씨는 한우 38두와 벼농사, 복분자, 오미자, 기타 농작물 등을 재배, 사육 하며 연 소득 1억원이 넘는 성공한 귀농인이다.
- 윤씨는 먼저 귀촌(1984)한 부친께서 평소 농사일을 하면서 "3년만 더 일찍 고향에 들어 왔으면 훨씬 농사도 잘 짓고 소득도 높았을 것"이라며 "자신에게 귀농을 여러 번 권유했다"고 전했다.
- 그는 "귀농 당시 집사람에게 상의 없이 무조건 회사에 사표를 내고 부모님 건강하실 때 농사를 배워 농사를 농사가 아닌 기업화하면 제가 바라던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홀로 귀농을 먼저 했다"고 전했다.
- 또 "귀농 첫해는 매일 눈물바람인 아내를 달래느라 매주 용인 집과 고향집을 오가며 몸에 익숙치 않은 농사일에 적응하느라 심신이 무척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다"며 힘든 시기를 한숨을 내쉬며 얘기했다.
- 농사일에 익숙하지 않고 서투른 이들 부부는 농사 실패와 농작물 생산에 따른 유통 판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예천군 농정과, 용문면사무소를 찾아 예천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 교육에 참가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 윤씨는 귀농 후 마을에서도 작목반총무, 영농조합설립, 마을이장, 영농회장 등 낮에는 농사일 밤에는 마을일 등을 병행하는 생활을 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며 농촌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 그러던 중 힘든 고비가 찾아왔다. 2009년 갑상선암이 발병해 수술까지 받는 등 힘든 시기를 넘겼다. 현재는 건강은 회복됐으나 또 다시 암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 마을의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오직 농사일에만 전념하고 있다.

- 윤씨가 귀농할 당시 부모님이 오미자를 심어 2년차 수확을 앞두고 있었는데 당시 문경 쪽(우리농원에서 시·군 경계지역)에서도 한참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그때까지는 수확한 오미자의 마땅한 판로가 없어 애를 먹었다.
- 당시에는 오미자를 한약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공중과 방송에서 오미자의 효능과 음료로서의 기능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윤씨는 직거래판매를 구상하고 오미자를 친환경으로 재배를 시작해 성공을 거뒀다.
- 윤씨는 2008년부터 차별화된 오미자를 생산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직접 밭로 뛰며 경쟁력 있는 오미자 생산을 위해 주위에 친환경 재배하는 이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책과 인터넷 교육 등을 통해 2009년 무농약 오미자 인증을 획득했고 매출도 덩달아 늘어났다.
- 복분자의 경우도 작물생리상 친환경으로 생산하기 용이한 조건을 가져 올해 친환경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 특히 오미자·복분자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이나 직거래로 도시민들에게 싸고 우수한 제품을 판매해 오고 있다.
- 체험장 운영의 경우 수확기에 1회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유동적으로 운영해 회당 15~25명 수준으로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 우리농원에서는 수확체험행사 뿐만 아니라 세척 후 복분자 설탕 절임 체험을 하고 있다.
- 윤씨는 체험장 운영과 관련해 향후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 현재 윤씨가 재배하는 오미자는 1만579㎡(3천200평)면적에 연 5

천여만원과 복분자생산은 3310m²(1천평)의 면적에 연 2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 이 외에도 벼농사에서 1천만원, 한우 사육에서 4천여만원, 기타 농작물에서 1천만원을 올리고 있다.
- 이런 가운데도 시간을 아껴가며 민·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는 무조건 참석을 하며 더불어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서 경북농민사관 학교, 농업기술센터 및 e-비즈니스 교육 등 많은 교육을 수료해 현장에 접목시키려는 역량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윤씨는 "오미자·복분자 수확 체험장을 활용해 농산물 가공(2015년 식품제조허가 득함)을 통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고, 한우 사육을 더 늘려 농·축산의 생산·체험·가공·유통을 통한 6차 산업 쪽으로 노력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예비 귀농인들에게 영농 기술전수 프로그램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민 팜투어 교육과 현장 작목반 중심의 영농 교육, 각종 노하우 기술 전수, 정보제공 등을 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이사비 지원(100만원), 정책 자금 지원(400만원), 귀농 영농 기반지원(400만원), 빈집수리비 지원(400만원) 등을 하고 있어 매년 귀농 귀촌 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 예천군으로 귀농한 도시민들은 2013년 106가구에 206명, 2014년에는 136가구에 240명이다.

* 출처 : 경북일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2016년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지원 사업자 모집공고

- 신청자격 : 조합,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 선정규모 : 전국 35개소 내외
- 지원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관련 컨설팅 비용, 농가조직화 교육비 보조 100%, 개소당 20백만원 내외
- 주 관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접 수 처 : aT광주전남지역본부
- 접수기한 : 8. 25.(화)까지

◆ 제13회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 및 전시회

- 출품 종목 : 호박, 박, 수세미, 동아, 여주 등 박과채소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신청 : 8. 20.(목) ~ 8. 27.(목)
- E-mail : jowon007@korea.kr, FAX : 063-238-6605
- 심사일시 : 8. 28.(금) 10:00 ~
- 시 상 : 19점 (대상 1점, 금상 3점 등, 시상금 730만 원)
- 시 상 식 : 9. 5.(토) 15:30
- 수상작 전시 : 9. 4. ~ 9. 8. / 순천만정원 국제습지센터 1층

주간

전남농업정보

47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